

지역주도 혁신성장 경험·지혜 한 자리에

6~8일 균형발전박람회... 17개 시·도 우수사례 전시
제주도 '친환경 성장, 탄소없는 섬 제주' 전시관 운영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다.

균형발전박람회는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 체험하는 소통의 장'으로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혁신을 통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

린다. 정부 정책 중심의 보여주식 박람회에서 벗어나 지역혁신활동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페스티벌의 박람회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성장, 탄소없는 섬 제주'를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주제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전기차충전인프라인 EV 카페'를 선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관을 통해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이 현실로 나타난 성과(전기차 페

배터리재사용센터)를 보여주면서 제주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주도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신 직업군, 일자리 창출 등 친환경 성장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관에서는 바리스타가 직접 제조하는 제주라떼와 제주커피, 제주사이다, 용암수 등 제주제품을 맛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박람회에서는 각 지역의 혁신성장 사례를 살펴보는 '균형마당', 혁신활동이 지역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를 공유하는 '혁신마당', 균형발전 시대의 과제와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마당' 등 3개의 주요 프로그램과 기타 부대행사

가 마련된다.

특히 혁신마당에서는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주역인 지역의 청년 혁신가들 1000여 명이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린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문화·예술 등 자신들의 활동 콘텐츠를 들고, 한 자리에 모인다.

이번 박람회 행사를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살고 지역을 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분권과 포용, 특히 혁신의 새로운 바람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다층구조 연금제도 설계 방안 고려해야”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
로버트 홀츠만 교수 기조연설



5일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서 로버트 홀츠만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흥준기자

세계은행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한 로버트 홀츠만(Robert Holzmann)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명예교수는 5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등의 발전을 통해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홀츠만 교수는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U)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서 'OECD 국가의 공적연금 동향'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버트 홀츠만 교수는 “최근 공적연금은 단일제도에서 한사람이 여러 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는 다층체제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세계은행 또한 기존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3중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기업+개인+공적부조+가족지원’의 5중구조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혁주 서울대학교 교수도 “최근 공적연금의 도전과 과제”라는 기조

연설에서 “2015년 개혁 결과 공무원 연금재정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60세)과 연금개시연령(65세 지급) 사이의 소득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며 “우선은 공직경험을 살려 퇴직 후 의미있는 소득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제주도 재정자립도 첫 40% 진입

제주도 재정관리보고서 공식
재정자립도 ↑...지방채비율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이는 9개 광역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공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30%에 불과했던 재정자립도는 올해 42.5%를 기록 도평균보다 3.5%p 높았다. 이는 처음으로 40%에 진입한 것으로 9개의 광역도 중 경기도(59%)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자세수입과 자주재원 등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인 재정자립도 역시 2013년 69.3%에서 2015년 74.8%로 상승, 도평균 50.2%보다 24.6%p 앞섰다.

이는 지방세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

다.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6.1%이며, 2018년 지방세(추정)는 1조3990억원으로 2013년 6646억원 대비 2배 이상 신장했다. 최근 5년간 순유입 인구증가, 부동산 활황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지난 2013~2018년 5년간 총계 기준 8.37%로, 전국 평균 6.37%보다 2%p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무지표 기준에 따르면 제주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4%에서 2013년 16.1%, 2014년 14.5%, 2015년 11.9%, 2016년 9.3%, 2017년 5.9%로 개선됐다.

보고서는 제주도 재정의 주요 특징으로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가 커졌으며 외부차입금 제로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이월액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이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래 재정 신수요 발생에 따른 초과지출 수요를 고려해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하고,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소요비용을 점검하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평양으로 출발하는 대북특사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했다. 연합뉴스

제주 국회의원 3인 “4·3 군사재판 재심 환영”

법원이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전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

리에 만전에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으로 지워지지 않은 낙인을 안고 사신 분들께 70년 만에 명예회복

을 위한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군사재판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적 차원의 과제 실현도 절실하다”며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논평을 통해 “실제적 진실규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이번 노력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힘을 보탠 것”이라며 “70년간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온 수형인들에게는 이번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그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공동체를 위해”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15~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

어린이 미니축구대회도 진행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밀 예정이다.

주민자치 분야 홍보·체험·전시관에서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선보이는 ▷대정 풍생이&방어 열쇠고리 만들기 ▷동백꽃잎 브로치 만들기 ▷벨소리 향초 꾸미기 ▷오메기떡 만들기 체험 ▷감귤비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일정 체험비를 내고 즐길 수 있다.

평생학습 분야로는 평생학습 기관·단체에서 동백꽃 킷팅 만들기, 캘리그래피 우리집 가훈쓰기, 청굴청 체험, 방향제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행사장 주무대에선 평생학습 청소년동아리 14개팀의 공연이, 16일에는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동아리 발표회가 마련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별빛체험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는 천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10월 별빛체험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별빛체험교실은 매달 다른 주제로 천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조흥준기자

이달에는 ‘우주 탐사’를 주제로 볼펜·넛케 토요일 오후 3시 천문 강의, 천문 관련 만들기 체험, 천체투영실 관람, 태양 관측이 진행된다. 신청은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하거나 전화(064-739-9701~2)로 하면 된다.



웰메이드(인디안) 모슬포점 9월 7일(금)

GRAND OPEN

WELLMADE
FOR OUR WORK & LIFE BALANCE
with INDIAN

국민브랜드 인디안을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세요.

웰메이드(구.콜핑) 모슬포점
대표 고수일, 김정인 대상
Tel. 064-794-8949



OPEN EVENT

1. 가을 신상품 금액대별 추가할인
30% SALE + 최대 **7만원** 할인
2. 웨딩 이벤트 정장구매시
30% SALE + **10만원** 추가할인 (혼주/본인 대상)
3. 오픈기념 구매고객 전원 **특별 사은품 증정**
4. 신규가입 혜택
 - 1만점 적립 및 즉시 사용 가능
 - 첫 포인트 사용시 **5천점 페이백**
 - 플러스친구 등록시 **5천원 쿠폰** (즉시사용가능)